



즉시 배포용: 2018년 8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재건 및 재건축 계획(NEW YORK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의 성공적 완료 발표

650명 이상의 뉴욕주립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들, 비영리 단체들이 함께 약 41,000시간 동안 주택 청소, 복원, 재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여름 내내 진행된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에서 마지막으로 배치한 학생 및 자원 봉사자들이 돌아와 성공적으로 완료됨을 발표했습니다. 여름 내내 650명 이상의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들, 기술 노동 봉사자들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와 어마(Hurricane Irma)의 상륙 후 약 일 년 후에도 여전히 그 피해를 복구 중인 섬 지역사회로 갔습니다. 다섯 번의 배치 과정 동안 봉사자들은 주택 청소, 복구, 재건에 약 41,000시간을 쏟았습니다. 10주간 178채를 복구하여 150채 주택을 보수하려던 목표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일 년 전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푸에르토리코 전역에 있는 미국 국민의 삶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워싱턴의 연방 정부는 간절한 요구와 연방의 원조를 원하는 호소를 무시해왔습니다.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의 마지막 배치자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위대한 뉴욕주는 다시 한 번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형제 자매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섬이 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회복력 있게 재건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수백 명의 학생과 봉사자들은 푸에르토리코 재건 및 복구 과정에서 가족들을 돕는 데 여름을 보냈습니다. 지역사회를 파괴한 자연 재해로부터 아직도 회복 중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한

노력이 자랑스럽습니다. 연방 정부가 복구 노력에서 등을 돌린 반면 뉴욕은 계속해서 우리의 동료 아메리카인들이 더 좋고 더 튼튼하게 복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의 자원 봉사자들은 비영리 재건 단체인 올 핸드 앤드 하츠(All Hands and Hearts), 하트 9/11(Heart 9/11), 네차마(NECHAMA) 등과 함께 일했습니다. 학생 자원 봉사자들은 2주간 배치되어 대학의 학점을 받았습니다. 뉴욕 건축업 및 건설업(New York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협회의 자원 봉사자들은 여름 내내 일주일에서 이 주일 간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미국 유엔 아동 기금(UNICEF USA)은 이 계획에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9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상륙한 후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는 푸에르토리코 섬이 재건되고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Kristina M. Johnson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동료 시민들의 원조 요청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되돌아보며, 저는 주지사님, 뉴욕과 푸에르토리코 협력자 분들,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꿀만한 경험이 되었고 동시에 완전한 주택을 마련하게 된 사람들과 올 여름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서 혜택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더 크게 바꿀 경험이 되었습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Vita C. Rabinowitz 임시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Cuomo 주지사님의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으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을 돕는 데 시간을 쏟아주시고 열심히 일하신 250명의 뉴욕 시립 대학교(CUNY) 학생들, 교수진, 인솔자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의 노동이었으며 학생 봉사자들에게 특히 교육적이고 의미 있을 뿐 아니라 뉴욕 시립 대학교(CUNY)와 섬이 이미 갖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 봉사였습니다. 주지사께서 가능하게 만든 이 기회를 통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학교의 역사적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2주 동안 학생 봉사자들로 이루어진 각 여덟 개 집단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파괴한 주택의 지붕을 세우고 곰팡이를 제거하고 기타 중요한 수리를 하는 데 일주일에 오 일을 일했습니다. 학생들은 일했고 봉사했으며 배우고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

여름 내내 유지된 봉사 활동은 3월 초에 발표한 Cuomo 주지사의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의 결실입니다.

4월, 뉴욕주 전역에서 온 전술 평가(Tactical Assessment) 전문가팀은 섬에 배치되어 정부 리더들, 비영리 기관 개축 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개축 계획 및 여름 배치 안내를 돕는 작업을 했습니다.

5월, 여름 내내 지속된 봉사 계획 마지막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500명 이상의 뉴욕 주립 대학교 매리타임 칼리지(SUNY Maritime College) 학생들을 트레이닝 십 엠파이어 스테이트 VI(Training Ship Empire State VI)에 태워 푸에르토리코에 배치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전역 주택 개축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관 생도들은 올버니 대학교(University at Albany)와 뉴욕 주립 대학교 환경학 및 임학 대학(SUNY 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Forestry) 학생 자원 봉사자 약 50명과 함께 일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레이터 산후안 지역의 비영리 재건 단체인 부에나 바이크라(Buena Vibra) 및 릴리프포피알(Relief4PR) 등과 함께 일했습니다.

6월, 계획 중반부에서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Johnson 명예총장과 뉴욕 시립 대학교 이사회(CUNY Board of Trustees)에 합류하여 푸에르토리코에서 학생들과 봉사했으며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 및 비영리 협력기관을 만났습니다. 그 일정 동안 주지사는 섬의 경제를 발달시킬 뉴욕과 푸에르토리코 간 새 농업 무역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섬이 계속 회복하는 동안 농업 및 식량공급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현지 농부들, 푸에르토리코 대학(University of Puerto Rico)과 기타 협력기관들은 산업을 회복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전문가를 제공하도록 함께 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진행 중인 푸에르토리코 지원 활동

2017년 9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간 후, Cuomo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를 5 차례 방문하면서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중요한 자원을 계속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뉴욕은 즉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을 설립하여, 궁극적으로 뉴욕주 전 지역 13 곳의 기부 사이트에서 받은 최소한 4,400 개의 화물 운반대 분량의 구호 물자를 배포했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전력 복구 및 전력망 안정화를 돕기 위해 전력회사 직원 및 전기 전문가 수백 명을 포함하여 1,000 명이 넘는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섬을 초토화시킨 후 뉴욕으로 대피해야 했던 푸에르토리코 가족들을 돕기 위해 뉴욕주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에 대피한 푸에르토리코인들에게 강력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만 달러 프로그램을 세우도록 지시하고,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직업 훈련 및 소개에 최대 1,000만 달러를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6월, 주지사는 뉴욕 주립 대학교 이사회(SUNY Board of Trustees)와 뉴욕 시립 대학교 이사회(CUNY Board of Trustees)가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로 피난한 학생에게 거주민(in-state) 학비를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거주민 학비 승인 연장으로 푸에르토리코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학생들은 2018-19학년동안 낮은 비용으로 주가 운영하는 대학교에 다닐 수 있고 가족들이 자연재해 피해에서 복구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2018년 봄 학기에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피난 학생들 약 50명과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피난 학생 200명이 거주민(in-state) 학비율을 이용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 연방 의회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은 푸에르토리코가 필요한 연방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에 Cuomo 주지사와 Rosselló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뉴욕 연방 의회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과 함께 빌드 백 벡터 평가 보고서(Build Back Better Assessment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택, 전력 공급망 및 복구력, 농업, 기타 요소 등을 비롯하여 투자가 필요한 특정 부문을 명시했습니다. 공공 안전 및 최고 대응 지원을 위해 4억 8,700만 달러, 장기 복구 관리에 90억 달러 등, 필요한 기금 총액은 944억 달러입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진행 중인 복구 및 구호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를 위한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